군산시 해상풍력 단지 개발 날개 달았다

산업자원부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4년까지 43억 투입 타당성 검증
1.6~2.0GW 5~6개 단지 개발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단지개발의 동력을 얻게 됐다.

군산시는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해상풍력 추진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해 43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군산 전 해역 내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 1.6~2.0GW 규모의 5~6개 입지를 발굴해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 전파영향 조사, 항로·해역 이용 등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사업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해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해수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국비 35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그간 운영해 온 상생협의회를 소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갈등 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영향 조사, 해상풍력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이 추진될 때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와 4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RE100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상풍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생활개선 사업, 에너지 가격인하 등과 같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투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운초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은 "해상풍력 사업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자 환경정책,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단순한 발전사업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며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끌어나가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지난 27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태인면 일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시연회가 열렸다.

정읍시,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정읍시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디지털 농업보급의 일환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논에 물을 얕게 댄 상태에서 싹을 틔운 볍씨를 드론으로 뿌려 파종은 물론 병해충 방제와 제초제 살포, 시비 등 전반적인 재배 과정에 드론을 활용하는 신기술 농법이다.

농작업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드론 직파재배는 기계 이앙재배 대비 생산비가 10a(300평)당 12만원이 절감되며 노동력은 이앙재배 대비 88%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인력 감소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고 정읍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벼 직파재배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시범사업 추진과 농가 기술교육으로 직파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백두대간 푸른숲서 지친 몸과 마음 치유하세요"

체험휴양시설·유아숲 체험원
남원시 11월까지 치유 프로그램

"지친 몸과 마음, 숲에서 치유하세요."

남원시는 운봉읍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유아숲 체험원에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에 문을 연 이곳은 21만545㎡ 면적에 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솔내음길, 음이온길, 조릿대길, 내나무터, 전망대 데크, 비채움 계곡, 명상실, 트리하우스(8개동), 힐링캠핑장(6개면) 등을 갖추고 있다.

산림치유란 산림의 자원, 경관, 햇빛, 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해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산림치유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남원시 운봉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에서는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진행된다. 〈남원시 제공〉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일반인, 직장인, 장애인, 노년기, 청소년기에 따라 대상별로 진행하는 일반형 프로그램인 ▲어느 멋진날에 ▲S-Z 스트레스 제로 ▲숲아! 네가 좋아 ▲나이야가라! ▲숲은 내 놀이터 등이 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고당비 내리는 숲'과 트리하우스와 캠핑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달팽이 여름휴가', '힐링엔 숲'도 운영한다. 이밖에 새로운 동창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반갑다! 친구야' 등 특화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주요활동은 치유의 공간을 코스별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오감숲길 걷기, 비움과 채움의 숲, 힐링 스토리텔링, 오감치유, 자연명상, 숲의 선물, 나무와 교감, 해먹산림욕, 노르딕워킹 등 다양한 치유 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숲 해설 프로그램인 ▲봄 왔나 봄 ▲풀꽃이야기 ▲곤충의 세계로 ▲자연의 색 등도 병행하고 있다. 사전예약제 및 현장접수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연구용역 착수

생산·가공·유통단계 안전 기준 마련

앞으로는 고창에서 나는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군수가 책임지고 인증하는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로컬푸드 안전 인증제'는 지역먹거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가공, 유통단계까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설정한다. 이후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관리체계 구축 ▲고창로컬푸드 안전·품질관리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고창로컬푸드의 정체성을 담아낼 브랜드 개발 ▲안전·품질관리분야 연계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인증 체계를 구축 등이 담겼다.

군은 점점 증가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친환경 농산물 생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대도시에 고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 등을 통해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의 조기 정착과 지역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제 지원

126명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순창군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 독거노인 126명에게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영양제 지원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창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건강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또 기초건강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개인별 신체활동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건강을 보살피고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졌지만 다시 시작된 대면 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아열대 과수 소득작목 발굴 현장 교육

익산시는 기후변화와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분야 대체작목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는 아열대 작물에 관심 있는 4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함평군에 소재한 애플망고 재배 농가인 '제로하우스'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교육은 최근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혜향, 바나나 등과 함께 많은 농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열대 작물 망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망고는 '애플망고'로 불리는 품종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경우 수입산 보다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다. 아열대 작목 중에서도 고소득 작목에 속하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작물이다.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이 원하는 재배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 교육 외에도 2017년부터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의 다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